

[논평]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확정, ‘행정수도 완성’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 내년 상반기 방통위 등 6개, 하반기 금융위 등 19개 기관 순차 이전 확정 -**
- 노무현과 이해찬이 일궈온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중단 없는 실천으로 이어갈 것 -

정부가 오늘(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달하는 총 44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강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앞당길 정부의 이번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요 정부 부처들이 이미 세종에 안착해 국정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능을 긴밀히 조율해야 할 핵심 위원회와 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정책 분절과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만여 명에 가까운 핵심 정책 인력이 세종으로 집적됨에 따라, 부처 간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국가 국정운영의 효율성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더불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철학을 온전히 꽃피우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차질 없는 실행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와 세종시는 이전 대상 기관 공직자들이 세종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임시 청사 확보 및 중장기 신청사 건립 계획을 빈틈없이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촘촘한 정주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중앙당, 지역 국회의원, 세종시정과 확고한 ‘원팀

(One-Team)’ 공조 체제를 가동해 관련 법령 정비와 이전 예산 확보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세종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온전히 확립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 이강진 시당위원장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결정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노무현과 이해찬이 지켜온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며,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